

## 백제시대의 목공예 연구

조 숙 경

서일대학교 생활가구디자인학과

### A Study on Woodcraft in Baekje

Sook-Kyung Cho

Department of Living Furniture Design, Seoil University, Seoul, 131-702, Korea

**Abstract:** This paper researched the woodcraft in the Baekje kingdom since the study on the Baekje furniture has not been established due to the absence of the artifacts or remains related to the furniture in the Baekje period. Accordingly, the study focused on the excavated Baekje wooden products and wood crafts on the basis of ancient documents and investigated the ancient documents supposedly related to the Baekje furniture: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and Japan Scribe. As the result of the study, it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woodcraft materials were wood, whagak, ivory, silver, gold and they were domestic or imported. Secondly, the woodcraft was finished naturally or lacquered with black or red color or varnishing with lacquer. Thirdly, the kinds of furniture used in the Baekje were a desk, a small portable dining table, a table and folding stool. Even though there has been no heritage of the Baekje furniture and woodcraft and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r give an example of the Baekje furniture in detail, this study seems to be significant now that it researched the documents and related artifacts or remains which could give some hints or hypothesis of the furniture and woodcraft in the Baekje. What is more, there have been no sound studies on the Baekje furniture.

**Keywords:** Baekje, Furniture, Woodcraft, wooden products

## 1. 서 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백제(百濟)는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존재했던 한국의 고대 국가이며,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 털어 부르는 삼국 중의 하나이다. 고구려 동명왕 고주몽의 셋째 아들인 온조왕(溫祚王, 재위 B.C.18~A.D.27)이 현재의 경기도 하남시와 광주시로 추측되는 곳에 내려와 하남위례성을 수도로

건국하였으며, 이후 도읍을 세 번 더 옮겼다. 따라서 백제시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유물들은 현재 서울의 올림픽공원 부근과 충남의 공주와 부여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서 출토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목공예 및 가구에 대한 연구자료 미흡으로 대학에서 한국목공예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로 인하여 연구된 논문이다. 현존하는 유물이 적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출토된 목제품을 근거로 당시의 목공예 및 가구를 추측해보고자 한다. 또한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위하여 백제와 관련된 고대문헌에 나타나는 기록을 제시하였다.

2014년 3월 25일 접수; 2014년 4월 20일 수정; 2014년 4월 21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조 숙 경 (kassel95@seoil.ac.kr)

따라서 본 연구는 출토된 목재유물과 고대문헌을 통해 백제시대의 가구 및 목공예품을 조사하여 당시를 예측함으로써 한국목공예 및 가구역사 정립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백제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당시의 종교 및 공예분야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현존하는 백제시대 가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적지에서 발굴된 목공예품 및 목제품 유물을 조사하며, 이와 더불어 『삼국유사』, 『삼국사기』, 『일본서기』에 실려 있는 가구에 대한 언급을 바탕으로 당시의 목공예 및 가구를 조사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백제시대의 일상을 알 수 있는 관련 문헌 및 논문 그리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당시의 사회적 배경 및 예술을 조사한다. 또한 몽촌토성과 한성백제박물관을 방문하여 출토된 백제 목공예품을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당시의 가구를 예측한다.

## 2. 백제시대 개요

### 2.1. 백제시대의 사회적 배경

하남위례성을 수도로 온조왕이 건국한 백제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한반도 중부의 소국들 및 한사군과 대립하면서 성장하였다.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현재 서울 올림픽공원의 몽촌토성과 풍납리토성, 서울 석촌동고분군 등을 들 수 있다. 4세기부터 충청도, 전라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으므로 충남 공주와 부여, 전라도 광주 등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 근초고왕(近肖古王) 때는 전라도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대립하였다. 그러나 5세기 초부터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아신왕(阿莘王: 제17대)이 항복을 하기도 하고 개로왕(蓋鹵王: 제21대)이 전사하는 등 수난을 겪었다. 그리고 475년에는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며, 이후 신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와 맞서 싸웠다. 660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공격으로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700년 역사의 백제가 제31대 의자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하

게 된다.

백제의 정치이념은 유교의 영향아래에 있었는데, 유교는 늦어도 백제의 11대왕인 비류왕(比流王)대에 중국으로부터 수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비류왕이 왕실의 권위와 왕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이는 충효(忠孝)를 기본으로 하는 유교정치사상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근초고왕은 중앙집권체제를 갖춘 뒤 박사 고희이 국사를 편찬하였으며, 박사 왕인이 『논어』와 『천자문』을 일본에 전했기 때문이다(노 2010). 또한 우주의 절대적 존재를 무(無)라고 주장하며, 유가(儒家)와 더불어 중국 철학의 큰 주류가 된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사상을 바탕으로 한 도가사상도 낙랑군을 통하여 유입되었다. 도가사상이 정치나 군사적 측면에 도입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백제 관복의 복색에 오행사상이 나타나고, 이 오행사상에 근거하여 군사훈련 장소를 선정한 점, 군대의 깃발을 오행의 중앙색인 황색으로 하고, 중앙의 귀족집단을 동·서·남·북·중부의 5부로 편제하며 지방통치조직을 5방으로 편제한 사실이다(노 2010).

백제시대의 종교는 왕실이 중심이 되어 받아들인 호국불교로 한산에 절을 짓고 10명의 승려를 배출한 침류왕 2년(385)에 불교가 공인되었다(노 2010)는 설이 유력하다. 공인된 후 민간에 퍼져있던 샤머니즘이나 점술 등의 다양한 신앙을 통합하면서 도읍을 웅진으로 옮기는 시점부터 일반시민에게까지 널리 퍼져 나갔다. 불교는 관련된 목탑, 석탑, 불상 등의 예술분야에 발달을 가져왔으며, 6세기 이후 삼국 중에서 불상유물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6세기 말에서 7세기에 이르러 예산의 사면석불, 태안의 마애삼존불, 서산의 마애삼존불 등의 석불이 대거 출현하였다(노 2010).

1997년 서울 풍납2동의 풍납현대연합주택조합 아파트공사 예정지에서 발견된 풍납토성은 발견당시까지 백제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손꼽혔던 몽촌토성의 위상을 위협할 정도의 많은 유물이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즉 Fig. 1과 같이 당시의 주거생활을 추정할 수 있는 건물터가 발견되었는데, 불에 탄 목재 기둥, 터널식 부뚜막, 저장

**Table 1.** The Crafts of Baekje

		
<p><b>백제금동향로</b> 국보287호. 높이 64.0 cm. 최대지름 19 cm.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백제시대. 국립부여박물관</p>	<p><b>그릇받침</b> 백제시대. 높이 68.8 cm. 공주 송산리6호분 출토. 국립공주박물관</p>	<p><b>금동보살입상</b> 백제 6세기 중엽, 보물 330호, 높이 11.2 cm, 부여 군수리절터 출토, 국립부여박물관</p>



**Fig. 1.** A building site of Pungnaptoseong.

구덩이, 식기 등이 함께 발견되었다(김 2001). 이와 더불어 기와, 전돌, 주춧돌, 곡물담긴 항아리, 흙으로 빚은 대야, 각종 토기들 그리고 자갈이나 돌이 섞이지 않은 흙으로만 만들어진 폭 40 m에 높이가 최저 9 m에 달하는 토성이 발견된 것이다.

**2.2. 백제시대 공예**

백제시대의 공예는 크게 금속공예, 토기, 목공예로 나눌 수 있으며, 목공예는 3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만큼 본 장에서는 그 외의 공예를 다루도록 하겠다.

금속공예는 무령왕릉(武寧王陵)에서 출토된 금제관식(金製冠飾), 금귀걸이, 금제뒤꽂이, 목걸이 등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능산리에서 발견된 은제관식과 귀걸이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1993년 충남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백제금동향로(百濟金銅香爐)(Table 1)는 백제금속공예의 최고품으로 손꼽힌다. 향을 피웠던 도구로서 불교 의식에 사용되었으며, 한국에서 발견된 향로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받침과 뚜껑이 있는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로 구조된 뚜껑장식(蓋頂部裝飾)인 꼭지, 뚜껑(蓋身部), 몸통(身部), 받침(臺足部)의 4부분이 결합된 구조이다.

백제토기는 dot자리무늬가 새겨진 것이 가장 많으며, 밑바닥이 납작한 그릇이 많다. 또한 발이 세 개 달린 그릇이나 단지 및 항아리, 호자(虎子), 버루 등 그릇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김 2008). Table 1의 그릇받침은 바닥이 둥근 그릇을 받쳤던 것으로 맨 위 상단의 받침부분이 파손되었지만 하

**Table 2.** Go board of Baekje



단은 완전하게 보존된 유물로 중요하다. 이러한 그릇받침은 이후 제사 때 사용하는 공헌용(貢獻用)으로 발전되었다.

백제의 조각은 불상이 대표적이며, 중국 남조(南朝)의 영향으로 온화하고 인간적인 불상이 많다. 대표작으로 군수리 출토의 <금동보살입상>, 규암면 출토의 <금동보살입상>, 삼양동 출토의 <관음보살입상>, <서산마애삼존불> 등이 있다. Table 1의 금동보살입상은 부여 군수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작지만 세부 표현이 정밀하여 백제 불상 조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 3. 백제시대 목공예품과 가구

#### 3.1. 목공예품

##### 3.1.1. 바둑판

전해지는 유물은 없지만 백제 개루왕(백제 4대왕)이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였다(김 1990)는 기록이 『삼국사기』 권제 25의 『백제본기』에 보이는 것처럼 당시에 바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31대 의자왕이 일본의 후지와라노 가마타리(藤原鎌足)에 선물한 바둑판(Table 2)은 일본 도다이지(東大寺) 쇼소인(正倉院)에 소장되어 있으며, 서울 한성백제박물관에 있는 것은 복제품이다. 한성백제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바둑판을 만드는데 사용된 재료는 자단목, 상아, 화각, 은판, 흑단목, 회양목이 있다. 바둑판을 담아 놓는 상자(Table 2)는 거북의 등껍질무늬를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하나의 거북무늬 안에 금박이나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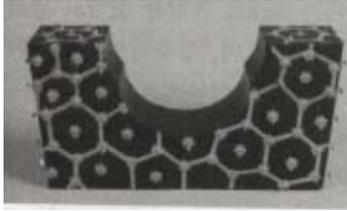
박의 무늬를 넣어 화려하다. 바둑판은 주로 인도 남부에서 자라는 자단(紫檀)으로 만들어졌으며, 판 위에는 상아로 된 19줄 선이 장식되었다. 바둑돌을 담아두는 용기(Table 2)는 목재로 된 백골에 흑칠을 하였으며, 문양을 붙여 만들었다. 이 바둑판의 재료로 사용된 자단과 상아로 미루어 볼 때 백제의 해상교역이 동아시아는 물론 인도 남부지역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제26대 성왕4년(529년)에 겸익(謙益)대사가 해상을 통해 인도에 다녀와서 울중을 개창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 3.1.2. 두침(頭枕)과 족좌(足座)

무령왕릉은 501년부터 523년까지 백제를 다스렸던 무령왕과 왕비가 합장된 곳으로, 1971년 공주시 금성동 송산리 고분군(사적 13호)에서 발굴되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두침과 족좌는 목재로 된 백제의 흔치않은 유물이다. 관속에 누워있던 무령왕(武寧王) 시신의 머리를 받치고 있던 두침(Table 3) 목재로 만들어진 몸체부분이 거의 썩어 없어지고 금장식품(金粧飾品)들만 남은채로 발굴되어 복원되었다. 두침의 표면은 검은 옷칠을 두껍게 하고 금판(金版)으로 구갑문(龜甲文)을 연속적으로 붙였다(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7). 왕의 두침과 함께 발견된 왕비의 두침(Table 3)은 머리를 받칠 수 있도록 원목을 아래로 둥그렇게 파낸 후 붉은 칠을 하였다. 왕의 두침과 같이 금박으로 구갑문을 연속적으로 붙였으며, 구갑무늬 안에 비천문(飛天文), 봉황, 연화(蓮花), 어룡(魚龍), 사관화문(四瓣花文) 등이 꾸며졌다. 또한 두침 좌·우의 꼭대기에는 봉황(鳳凰)의 머리를 목조

**Table 3.** Pillow & Staging of BaekJae Muryong Roayl Tomb

		
<p><b>무령왕 두침(頭枕)</b> 백제6세기 초, 가로 38 cm, 국립공주박물관</p>	<p><b>무령왕 왕비 두침(頭枕)</b> 백제6세기 초, 가로 40 cm, 높이 21.6 cm, 국립공주박물관</p>	<p><b>무령왕 족좌(足座)</b> 백제6세기 초, 가로 38 cm, 국립공주박물관</p>

**Table 4.** Wooden shoes of Baekje

	
<p><b>나막신</b> 백제시대. 충남 부여 쌍북리 출토</p>	<p><b>나막신</b> 백제시대. 광주 신창동 출토. 복천박물관</p>

각하여 서로 마주보도록 붙였다.

무령왕의 족좌는(Table 3) 두침과 마찬가지로 나무토막의 가운데를 두 발을 받칠 수 있도록 아래로 둥글게 파내었다. 마치 큰 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것 같은 이것은 표면에 두터운 흑칠을 하고 금으로 된 꽃과 구름문으로 장식하였다. 따라서 백제시대에 이미 주칠과 흑칠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3.1.3. 나막신

부여의 능산리 절터에서 발굴된 나막신들은 길이가 24~25 cm가 가장 많고 23 cm와 27 cm 등도 있다. Table 4에 제시된 나막신은 2010년 동방문화재연구원이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에서 발견한 것과 광주 신창동에서 발굴된 것이다. 이 나막신은 형태나 재료 측면에서 보아 이후 일본으로 전해져 게다(げた)로 발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3.1.4. 기타 목공예품

머리빗이 발견된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광주 신창동 소택지, 광양 마로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 이성산성 1차 저수지·7차 발굴조사 C지구 저수지, 함안 성산산성 연못지 등이다(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1997년 신창동에서 출토된 이 빗(Table 5)은 국립광주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 시료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단풍나무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참빗보다 간격이 넓은 얼레빗으로 목재덩어리에서 가늘고 뾰족하게 날을 조각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검은 칠이 되어있다.

쌍육(Table 5)은 편을 둘로 나누어 2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대로 판 위에 말을 움직여 앞서 나가면 이기는 놀이로 백제 때부터 시작되었다. 주로 명절에 하던 놀이로 조선시대 후기 풍속도화가인 신윤복(申潤福)의 풍속화첩(Table 5)에도 쌍육을 하는 장면이 그려진 것처럼 이 놀이는 조

Table 5. Et cetera Woodcraft of Baekje

		
<p><b>머리빗</b> 길이 11.9 cm. 날 최대길이 5.1 cm. 백제시대. 국립광주박물관</p>	<p><b>쌍육</b> 백제시대. 국립민속박물관</p>	<p><b>풍속화첩</b> 높이 10.1 cm, 몸지름 6 cm. 신윤복. 조선시대. 간송미술관</p>

Table 6. Agricultural implement of Baekje

	
<p><b>목매와 자귀</b> 충남부여궁남지, 광주신창동, 충남아산 갈매리</p>	<p><b>목제농기구</b> 나무자루달린 팽이, 나무팽이. 쇠스랑형 나무팽이. 광주 신창동</p>

선시대에 이르러 더욱 성행하였다.

3.1.5. 농기구

목매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못을 박거나 나무와 나무를 끼워 맞추기 위해 두드려 박을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딱딱나무나 느티나무처럼 단단한 나무로 만든다. 손잡이는 잡기 편하게 가늘며, 머리 부분은 크고 넓적하게 되어 있으며, 크기에 따라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된다. Table 6의 첫 번째 목매는 충남부여 궁남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대형이며, 두 번째의 것은 광주 신창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소형이다. 세 번째의 자귀는 까귀와 같이 나무를 다듬을 때 사용하는 연장이다.

광주 신창동유적지에서 출토된 목제농기구(Table 6)로는 나무자루달린 팽이, 나무팽이 그리고 쇠스랑형 나무팽이가 있다. 이 외에도 무안 양장리에서는

신창동에서 발굴된 팽이보다 너비가 두 배나 되는 쇠스랑형 나무팽이와 논과 밭의 흙을 편편하게 하거나 씨를 뿌린 후 흙으로 덮는데 사용하는 고무래도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목재는 농기구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주생활에 꼭 필요한 가구류에도 일반적으로 목재가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3.2. 백제시대 가구

백제의 가구로 전해지는 유물은 없으므로 당시의 가구를 추측할 수 있는 문헌을 통한 연구만이 가능하다.

『삼국사기』 권제28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원문: 十九年春二月衆狐入宮中一白狐坐上佐平書案  
해석: 19년 봄 2월에 여우떼가 궁중으로 들어왔는데 흰여우 한 마리가 상좌평(上佐平)의 책상에



Fig. 2. Muyongchong of Koguryo.

올라앉았다(김 1990).

여기에 기록된 서안(書案)은 책을 읽는 책상을 의미하며,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던 용어로 백제 시대에도 서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만주 집안현 통구소재의 무용총의 무용도(Fig. 2)에는 그릇을 나르는 두 명의 여인이 그려져 있다. 앞에 가는 사람은 다리가 달린 소반에 그릇을 올려 나르고 있으며, 뒤에 가는 사람은 다리가 없는 쟁반에 그릇을 올려서 나르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시대에 이미 밥이나 술을 마실 때 그릇이나 음식을 올려두는 소반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왕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를 건국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고구려의 생활문화도 그대로 전수되어 백제에서도 소반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중국의 사서인 양서(梁書)와 수서(隋書)에서는 백제의 언어와 복식·음식이 고구려와 같다고 되어있고,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위덕왕이 고구려장수와 성이 같다고 되어있는 점으로 미루어 백제문화가 고구려와 비슷하였음을 알 수 있다(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또한 『삼국사기』 권제22에는 당나라 고종 때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기록으로 호상(胡床)이라는 명칭이 고구려에 전해진 것



Fig. 3. Ancestral rites of Baekje. Seoul Baekje Museum.

을 알 수 있다(홍 2013).

원문: 處俊據胡床方食乾糲簡精銳擊敗之

해석: 처준이 호상에 앉아서 한참 마른 밥을 먹다가 정예 군사를 선발하여 우리 군사를 격파하였다.

이 외에도 백제시대에는 조상을 모시는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음식을 올려놓는 탁자가 사용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한성백제박물관에는 돌무지무덤 앞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 탁자를 놓은 제사장면을 모형(Fig. 3)으로 재현하여 전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삼국사기의 기록에 나오는 책상과 고구려 무용총에 그려진 소반, 삼국사기에 기록된 호상 그리고 제사 때 사용된 탁자 등이 백제시대에 사용된 가구로 추측된다.

### 3.3. 백제시대 목재

백제시대에는 어떤 목재가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는지 전해지는 유물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목공예품에 사용된 재료와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Table 2의 바둑판에 사용된 회양목은 활엽수의 한 종류로 우리나라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서식하는 나무이다. Table 5의 머리빗은 단풍나무로 만들어졌으며, Table 6의 목메는 단단한 떡갈나무나 느티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아쉬운 점은 박물관의 유물전시장에 목재의 종류가 밝혀져 있지 않으며, 관련 책자

에도 표기되지 않아 유리관 안에 있는 유물의 목재종류를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유물을 발굴 시 목재관련 전문가의 검증이 없었음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각 관련 분야의 협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문헌에 보여 지는 나무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으나 다음과 같이 삼국사기에서 회나무, 버드나무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원문: 二十一年春二月宮中太槐樹自枯

해석: 21년 봄 2월에 왕궁뜰에 있는 큰 회나무가 저절로 말랐다(김 1990).

다루왕 21년에는 회나무에 대한 기록이 아래와 같이 있는데 괴(槐)가 회나무를 뜻하며 괴나무라고도 칭한다.

원문: 三月穿池於宮南引水二十餘餘里四岸植以楊柳水中築鳥嶼疑方丈仙山

해석: 3월에 대권남쪽에 못을 파서 20여리 밖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사면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물 가운데 섬을 쌓아 방장선산과 비슷하게 하였다(김 1990).

무왕(武王) 35년(634)에 기록된 것으로 물가에서 잘 자라는 버드나무(楊柳)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이와 같이 출토된 목제품과 고대문헌을 통해 볼 때 단풍나무, 떡갈나무, 회나무, 회양목, 버드나무 등이 당시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에서 자라는 수종의 변화가 시대별로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있는 소나무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4. 결 론

본 연구는 전해지는 유물의 부재로 정립되지 못한 백제시대의 목공예에 대한 연구이다.

그동안 출토된 백제의 목제품과 목공예품을 중심으로 『삼국사기』, 『일본서기』 등 고대문헌에 보이는 가구관련기록을 기초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백제시대 목공예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목공예품과 가구에 사용된 재료는 목재, 화각, 상아, 은, 금 등으로 국내산과 수입재료가 사용되었다. 특히 목재는 국내산으로 단풍나무, 떡갈나무, 회나무, 회양목, 버드나무, 소나무 등이 사용되었으며, 수입목재로는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자단목과 흑단이 있다. 박물관에 사용된 화각은 국내에서 조달된 것으로 보이며, 상아는 수입되었다.

둘째, 목공예품과 가구에 사용된 도장은 원목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사용하거나 주칠, 흑칠, 옷칠로 마감하였다. 이와 같은 마감은 귀족층에서만 사용되고 서민사회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백기름과 같은 식물기름을 발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사용된 가구의 종류로는 책상, 소반, 탁자, 호상 등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 전해지는 유물은 없으나 『삼국사기』와 같은 문헌에서 묘사되고 있다.

백제시대에 사용되었던 목공예품과 가구가 현재까지 전해지는 유물이 적어 구체적인 예시가 힘들어도 불구하고 당시의 목공예와 가구를 추측할 수 있는 문헌 및 관련 유물을 토대로 연구된 본 논문은 백제 목공예 및 가구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현 시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후 백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본 유물과 비교·조사하는 세밀한 연구가 이어져 우리나라 목공예 및 가구의 역사를 정립할 수 있는 근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사 사

이 논문은 2014년도 서일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지원받아 연구하였음.

## 참 고 문 헌

- 김부식. 1990. 삼국사기(상). 도서출판 신서원. 513, 553, 580쪽.  
 김정필. 2008. 한국문화의 조형. 재원미술총서. 101쪽.  
 김태식. 2001. 풍납토성. 김영사. 195, 196쪽.  
 노중국. 2010.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380, 381쪽.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백제의 미술.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15, 16, 229쪽.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백제의 문물교류.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7쪽.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유적·유물로 본 백제 (I).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121쪽.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유적·유물로 본 백제 (II).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75쪽.
- 홍선아. 2013. 한국 호상(胡床)의 始原과 조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Vol.24/no.2 160.